일본 最古 사리장엄 발견되다

나라현 타이마데라, 서탑 상륜부에서 발견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나라현에 소재한 타이마데라(612년 창건)에서 일본 최고(最古)로 추정되는 사리장엄구가 발견됐다. 11월 15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의 일본 현지 언론들은 "현재까지 일본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 중 가장 오래된 연대의 유물"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4일 타이마데라 · 나라국립박물관 · 나라현교육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타이마데라의 서탑(西榻) 상륜부에서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7세기 후반 하쿠호(白鳳時代)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리장엄구는 지난 7월 서탑 보수공사 중에 발견됐다.

사리장엄구는 깊이 17㎝가량의 동제 외함에 담겨있었으며, 각각 다른 크기로 금, 은, 금동제의 사리함이 3중으로 담겨 있었다. 가장 안쪽에 담겨있는 사리호는 80%의 순금과 20% 순은을 합금해 높이 1.2㎝의 크기로 조성, 안에서 투명한 사리가 발견됐다.

사리구와 함께 외함 내부에서는 수정 구슬과 10세기경의 동전, 12세기에서 17세기까지 다양한 연대의 문서와 사경 등 탑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들도 발견됐다.

나라국립박물관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서탑의 보수는 약 1914년이다, 당시 조사에서도 사리장엄구를 발견했으나 시대를 밝히진 못했다"며 기록에 남은 사리장엄구가 이번에 발견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리장엄구의 양식에 대해서는 "금, 은, 동의 삼중 사리구는 석가모니가 입

7세기말 조성한 것으로 추정
동제 외함에 3중으로 담겨져
10세기 이후 사료들도 발견
"창건당시 건축구조도 짐작"

적한 후 법구를 금, 은, 동으로 만든 삼중관에 안치했다는 이야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삼중 사리구를 탑에 봉안한 것은 하쿠호 시대 다른 탑에서도 발견된다"고 전했다.

조사에 참여한 일본불교미술사의 권위자 세키네 슌이치 나라대 교수는 "화려한 장식 없이 소박한 조형미를 강조한



타이마데라 서탑 상륜부에서 발견된 삼중 사리장엄구. 사진출처=산케이뉴스

당시 사리구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제 사리호와 은제 사리구의 뚜껑이 "은과 납을 합금해 땜질을 하는 은납 접착을 사용했다"며 불교미술사에서 매우 보기 드문 귀중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 서탑 보수공사책임자인 야마시타 히데키 니라현 문화재보존 사무국 주임은 "하쿠호시대 사리장엄의 발견으로 사찰의 창건당시 건축구조를 짐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리장엄구의 발견으로 서탑의 건축 추정시기도 앞당겨지게 됐다. 서탑은 지금까지 9~10세기경에 건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0년 전 보수공사에서 "심주(心柱)가 초석에 비껴서 부자연스럽게 서있다. 또 초석의 형태와 크기 등이 10세기경의 초석으로 보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서 타이마데라 측은 "절의 전승에 따르면 타이마데라는 현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축됐다고 한다. 심주에 비껴난 것은 이러한 이축에 따른 것 아니겠는가"며 의견을 전했다.

발견된 사리장엄구는 보존처리를 거쳐 내년 2월 19일부터 약 한 달간 나라박물관에 특별 전시될 예정이다. 그 후 나라박물관에 기탁된다. 타이마데라 측은 "사찰의 명확한 창건시기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보물이다. 탑에 다시 봉안하면 몇 백 년을 볼 수 없다"며 기탁 이유를 밝혔다. 대신 동일한 복제품을 제작, 발견된 사리만을 다시 봉안하여 탑에 안치한다.

스리랑카서 스님 '강경 진압'… 대통령 사과

경찰, '도로 점거' 이유로 물대포 · 최루탄 발포

스리랑카 정부 반대 시위에 참석한 승려 및 신도들에게 경찰이 무차별 물대포와 최루탄을 쏜 데 대해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이 11월 19일(현지시간) 공식 사과했다.

Hiru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리세나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석한 승려 및 신도들에게 강경 진압을 한 경찰 관계자를 면밀히 조사에 즉각 조치에 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급진 불교 단체 보두발라세나(Bodu Bala Sena) 스님들과 신도들은 이날 창립자 갈라고다 아세세 그나나사라(Galagoda Aththe Gnanasara Thera) 스님의 석방을 요구하며 오전 대통령 비서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물대포 및 최루탄을 쏘며 진압했다. 이와 관련 현지 언론은 "스님들을 포함한 시위대가 대통령 비서실 진입로를 막은 채로 시위했다. 경찰은 시위대 분산을 위해 물대포 및 최



시위에 참여한 불교 단체 보두발라세나 스님들과 신도들이 물대포를 맞고 있다. 사진출처=데일리미러

루 가스를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급진 불교계를 중심으로 경찰의 이 같은 조치가 '강경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교 탄압'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단체 행동까지 암시됐다. 불교단체 지도부들은 스리랑카 대통령실을 직접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이 직접 사과, 진화에 나섰다. 이들이 석방을 요구했던 갈라고다 아세세 그나나사라 스님에 대한 사법적 검토도 다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정현 객원기자

日, 높이 6m '토끼 관음상' 탄생

제초 도와주는 토끼들에 보은 의미 담아

일본 니가타(新潟)현 사도(佐渡)시에 특별한 불상이 조성됐다. 지난 11월 15일 일본의 인터넷 매체 '이로이로뉴스'는 사도시 쵸코쿠지(長谷寺)는 높이 6m의 '토끼 관음상'을 특별 보도했다.

쵸코쿠지는 807년 세워진 천년고찰. 경내에 모란과 철쭉, 민들레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꽃으로 유명한 사찰이다. 쵸코쿠지는 지난 2006년부터 제초제를 사용해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화초는 물론 참배자들과 경내환경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제초제 사용을 중지했다. 이와 함께 대체방안으로 "토끼들을 경내에 방사해 잡초를 먹게 하는 '토끼 제초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내에는 약 140마리의 토끼가 살고 있다.

토끼 관음상은 그간 경내 환경보호에 공헌한 토끼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조성됐다. 좌대를 포함해 높이 6m, 하얀 석영석으로 조성된 거대한 토끼석상의 가슴에는 쵸코쿠지의 본존 11면 관세음보살의 얼굴이 부조로 새겨졌다. 토끼의 눈에는 붉은색 발광다이오드를 설치, 밤에는 토끼의 눈처럼 붉게 빛난다.

쵸코쿠지의 주지 토미타 호겐 스님은 "토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성



사도시 쵸코쿠지에 건립된 토끼관음상과 야간에 점등된 모습. 사진출처=이로이로뉴스

했다. 토끼들이 절을 지키기 위해 힘써주는 만큼 관세음보살님께서 토끼들을 지켜달라는 뜻에서 토끼의 몸에 관세음보살님의 얼굴을 새겼다"고 조성 의의를 밝혔다. 또 호겐 스님은 "토끼 관음상을 일부러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습으로 조성했다, 앞으로 싱가폴의 머라이언(Merlion)과 같이 사도시의 심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토끼관음상의 뉴스를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토끼를 위해 관음상을 조성했다는 점이 귀엽다" "반드시 보러 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야간에 붉은색 눈이 켜진 사진에 대해서는 "밤에 눈이 붉게 빛나서 무섭다" "마치 게임 속 악당 캐릭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여 낮과 밤의 두 가지 캐릭터가 공존하는 점에 호평을 보냈다.

박영빈 객원기자

무자비한 미얀마 군부… 로힝야족 무차별 총격

경찰 "칼로 위협해 불가피" 난민 "경찰 공격한 적 없어"

미얀마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군부의 무자비한 행태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로힝야족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내국 난민촌(IDP)에서 무장경찰이 난민들을 향해 총을 쏘는 참사가 벌어진 데 이어, 최근 로힝야족 난민 송환 실패 책임을 방글라데시에 전가해 국제사회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11월 19일 VOA뉴스 ·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경찰은 전날 라카인주(州) 주도 시트웨 인근 아 나욱예 IDP에 20여 명의 무장한 경찰관을 보냈다. 최근 로힝야족 난민 100여 명을 태운 채 양곤 인근 해역에서 적발된 선박의 소유주를 검거하기 위함이었다. 이 과정에서 4명의 난민들이 총상을 당했다.

경찰 측은 난민들이 자신들을 에워싸



미얀마 현지 경찰의 발포로 총상 입은 로힝야족 주민들. 사진출처=더인펜던트

고 칼로 위협해 불가피한 발포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현지 경찰 관계자는 "난민촌 벵갈리(군부 및 극우불교단체에서 로힝야족을 낮춰 부르는 말)들이 검거 과정을 방해해 발포 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벵갈리가 다쳤다고 들었다.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로힝야족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로힝야족은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경찰을 공격한 적 없다. 경찰은 경고 사격 없이 곧바로 주민들에게 발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 당초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로힝야족 난민들의 송환 계획도 무산됐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양국이 방글라데시로 망명한 로힝야족 난민 일부인 2251명을 1차 송환 대상자로 선정, 본국행을 추진한 지 약 일주일만의 일이다. 로힝야족은 총격 사태 등이 발발하자 시민권 및 안전 보장을 촉구하며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미얀마 당국이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로힝야족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적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특히 난민들의 송환 거부를 두고 방글라데시 측에 원인을 돌리면서 자신들은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국제사회 공분이 일고 있다. 그동안 중재 역할을 하던 UN에서도 '내로남불'식의 미얀마 당국의 행태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도 송환중단을 촉구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연등표 출력 | 인등표 출력 | 위패 출력
문자발송 | 기부금 영수증 |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